

불교계의 비 원효, 여명의 여운 남긴다

극단 신화레파토리 '여명의 바다-원효' 산사음악회서 공연... 마당극 형식 빌려

풀숲에 진흙 빛깔을 살포시 드러내는 앵두나무가 제법 가슴을 설레게 하는 한 여름 밤, 아름다운 노래와 춤으로, 또 그 속에 숨어있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더위를 식혀 줄 연극이 선보인다.

"어머머머! 이게 누구야? 불교계의 비, 원효 대사님 아니세요. 곡차는 뭘로 때리실까? 양주? 맥주? 아니면 말아서?"

"내 오랜 수도를 하룻밤 사이에 허물 수가 없지. 여인을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여인으로 보자. 색스러운 눈으로 보는 원효의 마음이라?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하는 그 도리! 아 세존이시여!"

8월 16일 완주 송광사 산사음악회를 시작으로 전국사찰 산사음악회 등에서 불자들을 찾아갈 연극 '여명의바다-원효'. 원효 스님이 소성거사로 살아가며 던지는 이 대사는 작품을 관유하는 주제다. 드라마 대장금과 대조영, 선덕여왕과 거상 김만덕 등에서 열연을 펼쳐 온 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이 연출을 맡았다.

불교 중흥기로 접어들기 전 신라 하층민에게 불법은 어떻게 전해졌을까? 대중과 소통하는 불교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답하기 위해 연극은 원효 일대기의 뼈대를 세 가지 마당으로 나눠 집중한다.

그 첫 번째는 당나라 유학길에서 원효 스님이 해골 물을 마시는 부분이다.

"아빠! 간밤에 내가 마셨던 물이 해골에 고인 물이었던 말인가?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도 모두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그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부처와 중생이 하나인 경지가 열리는 게지!"

원효 스님으로 분장한 배우는 무애춤을 추며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관객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마당극 형식으로 연극은 진행된다.

대중들이 불교를 접하는 데 대한 답을 구하지마자 연극은 또 다른 마당으로 이어진다. 원효 스님을 사모하는 요석 공주의 정으로 무열왕이 원효 스님을 궁으로 들게 하는 장면이다.

"원효 대사, 내 이 가슴의 짚이 반드시 본 국에 큰일을 할 사람에게 쓰일 것 같으니 이내 소원 이뤄주소!"

무심해 보이는 원효 스님과 이를 애절한 눈빛으로 붙잡는 요석 공주의 뒤로 요석 공주의 마음을 표현한 한 명의 무용수가 선 고운 춤사위를 펼친다.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사이에서 나온 설총 역으로는 실제 동자승이 나와 웃음을 선사한다.

세 번째 마당으로는 파계승인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의 만남. 원효 스님이 관음보살의 현신인 아름다운 여인을 옥류폭포에서 만나는 일화로 꾸러진다.

이중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의 만남은 이 연극의 백미다. 대안 스님 역에는 김영민 단장이 직접 나서 '세상은 요지경' 노래와 춤을 추며 관객들과 교감을 나눈다. 이 부분에서 나무아미타불 염불 속에 배우들은 마당극과 같이 관객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 대사를 주고 받는다. 성숙을 떠난 가르침에 대해 대화를 나눈 대안 스님과 원효 스님이 객석으로 퇴장하며 더욱 흥을 돋운다.

이들이 객석으로 사라지면 요염한 자태의 여인이 춤을 추는 가운데 자재암 장건 설화가 펼쳐진다. 여기에서는 목탁이란 스님이 해설자로 등장해 원효 스님이 갖은 유혹을 요지부동의 자세로 이겨내는 부분에 해설을 덧붙인다. 원효 스님이 옥류폭포 가에 암자를 지은 뒤 '자기의 몸과 마음을 뜻대로 한 곳'이란 자재암을 이름 붙인다는 역사 설명도 또 다른 묘미다.

이처럼 세 마당 속에는 원효 스님의 가르침인 '일체유심조' '화쟁' '원융회통' 사상이 절묘하게 녹아 있다. 무대와 조명장치 또한 최소화해 대중과 어우러짐을 노렸다. 노덕현 기자



7월 15일 서울 망원동 연습실에서는 연출가의 지도로 원효 스님과 요석 공주 역의 배우들이 '요석궁에서의 만남' 장면 연습에 한창이다.

■ 인터뷰 - 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

"사찰 무대로 불교만의 해학 풀어볼 터"

개신교 공연하며 불교연극의 미래 발견해

전국순회공연작인 연극 '여명의바다-원효'를 준비 중인 김영민 신화레파토리 단장(사진은 "이번 연극의 특징은 무대에서 진행되는 형태에서 탈피해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진 총체연극(마당극)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여명의바다-원효'는 각설이 타령과 해학적인 대사 등이 어우러지고 실제 동자승(설총 역)이 출연하는 등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많은 극적 장치들이 시도된다.

김 단장은 "음악 위주인 사찰음악회 등에서 춤이 어우러진 연극이 가미된다면 불교 문화공연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연출에는 40여 년 간 연극과 TV 등에서 연기를 펼쳐온 김 단장이 느낀 불교계 공연문화의 현주소가 반영돼있다.

김 단장은 "예전 친목차원에서 개신교 연예인 공연단에 참가해 베드르 역할을 맡아 전국 순회공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연기를 하며 불교계도 연극으로 포교의 장이 세

게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교회 등에서 연극을 펼칠 때 좁은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교회 신도들을 보며, 굳이 사찰 대웅전과 앞마당 등 특정한 무대를 만들 필요도 장소도 불문하고 불자들이 호흡할 수 있는 불교연극을 해보자는 꿈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가족 중 일원이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후 대불련 회장을 역임하고, 불교 언론계에서 일하며 자신도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김 단장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마다 가족, 때로는 혼자 강화 전등사를 찾으며 이러한 생각을 더욱 키웠다"고 말했다. 아직 사찰 등에서 변변한 후원조차 없지만 김 단장과 신화레파토리는 포교에 대한 원력 하나로 2년간 공연할 예정이다.

김 단장은 "향후 고승을 소재한 연극 외에 생활 속 불교를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을 선보이고 싶다"며 불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을 당부했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랩·댄스 붐다와 만나면 연꽃의 소리 2집 'Samsara'

랩과 댄스로 자비와 지혜의 아름다운 삶을 노래하는 현대적인 차세대 찬불가가 불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2006년 1집 '패랭이꽃과 나그네'에서 랩, 스님과 소녀의 듀엣 등으로 불교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연꽃의 소리' (대표 박금표)가 7월 22일 신촌 흥대 앞 상상마당에서 2집 'Samsara'를 발표했다.

윤회를 뜻하는 'Samsara'는 전생·내생, 그리고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이번 앨범에 붙여졌다. 영산재 이수자인 지혜 스님(원수사 주지)과 불교방송 불교음악감상실을 진행하며 엘리스블루만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혜윤씨, <반야심경>과 신묘장구대다라니 등을 랩으로 재해석해 군 포교 활동 등에 나서고 있는 래퍼 순이타 등이 앨범 제작에 참여해 젊은 감각에 맞는 찬불가를 노래했다.

이번 앨범에는 '성불하세요' '자비의노래' 'Spring' 등 찬불가 외에도 'SMADI PRAZNA' 등 보조국사 지눌 스님 열반 800주기 기념 헌정곡, 보사노바삼바에 모던 재즈를 섞은 현대음악 'Feel U Now For Avalokiteshvara'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실렸다.

연꽃의 소리 박금표 대표는 "매가 건너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집 앨범 'Samsara'를 만들었다"며 "이번 앨범이 바쁘게 앞으로 내달리지만 하는 현대인들이 깨달음의 바다를 건너는데 나무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2)723-9836, www.soundoflotus.com 노덕현 기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 02.732.2403-4 F. 02.739.7565
minjoksa@chol.com www.minjoksa.org

보경 스님의 희로애락 세상보기

이야기 숲을 거닐다

동서고금의 이야기 숲에서 건져낸, 보경 스님이 들려주는 삶의 기쁨·분노·슬픔·즐거움의 지혜!

이야기는 반복에 묘미가 있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삶이 부족한 사람은 일러줘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면 깨우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행복한 영혼을 꿈꾸게 하는 마법과 같다. 상상의 안개가 가득 가득 피어야 정신이 건강해진다.

난 이야기가 좋다!

보경 스님 지음! 도서출판 민족사
국판 (140x210mm) 280쪽 | 본문 2도 | 값 12,000원